

예술사회학의 지형

Mapping “Sociology of the Arts”

박은혜(Park, Eun-Hye)*

빅토리아 D. 알렉산더(2010). 『예술사회학: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 최셋별, 한준, 김은하 (역). 경기: 살림, 2003.

사회학을 전공한 필자에게, 많은 학생들과 동료들은 무용사회학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추천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필자 역시 이들과 동일한 필요성을 느껴 수년간 다양한 저작들을 살펴 보았지만, 아직 그 요청에 부응할만한 단행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필자의 공부가 부족한 탓이 크겠지만,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패러다임 등은 단 하나의 저작으로 정리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필자에게 그러한 요청을 했던 이들도, 짐작하건데 이러한 사실을 간파했기에 보다 일목요연한 관점과 사례들을 제시해주는 단행본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하는 『예술사회학: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이하 『예술사회학』)의 저자 알렉산더(victoria D. Alexander) 역시 필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머리말에서 예술사회학의 “다양한 지적 접근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한 권의 교재를 소개해 달라는 학생들의 끈질긴 요구” 덕분에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의 학생들도 예술사회학의 지형을 그려줄 안내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에게 『예술사회학』은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저작인데, 이 책은 무용은 물론이고 미술, 음악, 문화 그리고 대중예술 등을 사회학적으로 다루는 대학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관심은 예술로도 이어졌다. 이에, 예술사회학과 관련된 국내 저작들이 등장했으며, 학계에서 유명한 해외 단행본들 역시 번역 및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수를 제외하고¹⁾ 대부분의 저서들은 특정 주제를 깊이 다루기는 하지만, 예술사회학 전반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주제 까지 망라하지는 않고 있다. 여러 책들 중 알렉산더의 『예술사회학』은 미국 문화사회학의 관점을 통해 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독보적이라 할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eh5800@naver.com

1) 국내에 번역 및 소개된 베라 L. 졸버그의 『예술사회학』(현택수(역)(서울: 나남, 2000))과 오스틴 해링턴의 『예술과 사회 이론』(정우진(역)(서울: 이학사, 2014))역시 예술사회학에 대한 수준 높은 학술서이다.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은 사회학적 접근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해주는 훌륭한 교재이다. 이 저작이 국내에서 출판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개괄하기보다 사회학적 예술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예술사회학』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예술사회학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 대부분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흥미를 갖고 이 학문을 접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흔히 떠올리게 되는 초창기적 아이디어 중 하나는 “예술이 사회에 대해 정보를 담고 있다”거나 “예술창조는 사회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와 예술과의 관계성에 대한 전통적 시각의 하나인데, 이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물들이 예술사회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 중에서도 “예술이 사회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는 생각들은, 알렉산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진한’ 것이다. 사회학자인 데상(Desan)·퍼거슨(Ferguson)·그리스월드(Griswold)가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술은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왜곡된 형태로 일부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²⁾

예술사회학에 이제 막 관심을 두기 시작한 사람들의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개인단위의 자료를 통해 해당 사회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 1인의 삶이나 소수의 작품을 가지고 해당 시대를 읽어냈다고 판단하는 일이다. 사회조사방법론에서는 이를 ‘개인주의적 오류(individualistic fallacy)’라고 부르는데, 이는 개인단위의 특성에서 집단의 성격을 알아내고자 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일은 해당 오류의 이름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봉착하는 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학은 사회를 단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성격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들의 구성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볼 때 개인단위를 바탕으로 설계된 연구는 사회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중 소수는 사회학이 해당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회학은 분명,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여성학, 사학, 교육학 등 여러 인접학문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며, 앞서 이야기했듯 매우 다양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은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그 나름의 지적 전통과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학적 연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된 예외적 상황이 아니며 예술사회학에 입문한 초보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알렉산더의 책은 예술사회학 입문자에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예술사회학』은 저자가 순진한 시각이라고 표현한 반영이론 및 형성이론에서 출발하여, 문화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폭넓게 다룬다. 이 책은 예술과 관련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학적 연구의 주요 흐름들을 개괄하면서, 예술작품은 물론이고 예술가와 소비자, 분배체계, 네트워크, 산업체계와 정부, 계층과 계급은 물론이고 국제적 흐름까지 포괄한다.

2) Philippe Desan, Priscilla Parkhurst Ferguson and Wendy Griswold(eds.)(1988), “Editors’ Introduction: Mirrors, Frames and Demons: Reflections on the Sociology of Literature,” in *Literature and Social Practic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10.

이 책을 통해 알렉산더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앞서 논의한 세 가지 오해들을 극복할 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회와 예술의 관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일직선 혹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미국의 문화사회학자 그리스월드(Wendy Griswold)가 제시한 문화의 다이아몬드(Cultural Diamond)에 분배지점을 삽입하여 보완함으로써,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사회의 여러 지점과 예술과의 연관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그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술은 예술을 둘러싼 관습, 생산 기술, 여과효과와 같은 생산요소에 영향을 받고, 예술의 관중 역시 단일한 집단이 아닌 여러 다른 성격의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둘째,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개인단위의 분석설계를 통해서 특정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예술작품은 흔히 천재적이거나 위대한 예술가가 홀로 만들어 낸다는 신화에 묻히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예술계의 집합적 산물일 경우가 많으며, 오직 한 명의 예술가가 독자적으로 만든 작품일지라도 이것이 특정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분배체계의 여과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술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단위의 분석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해야 하고 그 과정은 엄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신뢰도를 담보하는 양적분석뿐만 아니라 높은 타당도를 목표로 하는 질적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렉산더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례연구들에 나타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이상의 설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학에는 특정한 지적 흐름이 존재하며 이는 현대에 이르러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고전사회학자인 마르크스(Karl Marx), 베버(Max Weber) 그리고 뒤르케임(Emile Durkheim)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세 명의 대가 모두는 짧은 글 한편으로 절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깊이 있고 방대한 저술과 업적으로 유명한테,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알기 어렵다. 이는 사회학전공자가 아니면서 예술사회학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알렉산더는 사회학의 이론과 열개에 대해 단순하지만 비교적 잘 정리된 설명을 서론부분에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준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알렉산더의 『예술사회학』은 각 장의 말미마다 사례연구를 삽입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연구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연구의 주제는 물론이고 논의의 전개방식,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예술사회학적 연구의 논리적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연구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에 제시된 참고문헌들은 예술사회학에 있어 고전적 저작들은 물론이고 사회학적 예술연구의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들 역시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책의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무용이라는 예술장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마도 알렉산더의 『예술사회학』이 춤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가 적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상위 범주에서 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사회 내에서 춤의 공간 역시 협소하다는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춤에 대한 사회학적 성과가 적다는 현실은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 하겠다. 이에 알렉산더의 저술은 사회학이라는 시각을 담보하면서도 춤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다.